

# 姜世晃의 燕行活動과 繪畫

## 甲辰燕行詩畫帖을 중심으로

정은주\*

- I. 머리말
- II. 甲辰燕行詩畫帖의 현황 및 구성
- III. 燕行路程에서 그린 中國實景
- IV. 燕行 관련 공적 활동과 瀛臺水戲
- V. 연경 天主堂 방문과 西學 인식
- VI. 맺음말

### I. 머리말

姜世晃(1713-1791)은 1784년 10월부터 1785년 2월까지 정사 李徽之(1715-1785), 서장관 李泰永(1744-1803)과 함께 進賀謝恩兼冬至使行的 부사로 연행하였다.<sup>1</sup> 연행의 목적은 청나라 건륭제가 50년 동안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린 것을 하례하고 칙령으로 조선사신을 千叟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센터 연구원

<sup>1</sup> 李徽之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세, 자는 美卿, 호는 老浦이다. 1784년 謝恩兼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耨老所에 들어갔다. 시호는 文憲이다. 李泰永의 본관은 韓山, 자는 士仰, 호는 東田. 홍문관 부교리를 역임하였고, 연행에서 남긴 그의 시는 정사와 부사에 필적할 만한 文才를 갖추었다.

宴에 참석시킨 것과 중국에 표류한 조선인을 돌려보낸 것에 대한 사례, 그리고 연공을 마치기 위한 것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1784년 동지사행을 배경으로 제작된 연행시화첩 중 강세황의 일부 작품을 ‘中國紀行帖’이라 지칭하였다.<sup>2</sup> 그러나 중국기행첩이라는 명칭이 燕行이라는 공식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작품의 성격을 아우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시 동지사행에서 강세황을 비롯한 삼사가 수창한 시와 그림을 엮은 詩書帖을 ‘甲辰燕行詩書帖’이라 통칭하기로 한다. 甲辰燕行詩書帖 중 《壽域恩波帖》, 《槎路三奇帖》, 《瀛臺奇觀帖》 3첩은 최근까지 이회지 문중에서 소장하였던 것이며, 강세황筆 시화첩 《燕臺弄毫帖》과 《金臺弄翰帖》이 영남대학교박물관과 경남대학교박물관 데라우찌문고에 각각 한 첩씩 소장되었다. 그 밖에도 1784년 동지사행과 관련한 작품 기록과 여러 점의 분철 화폭이 전하는 점을 감안할 때, 甲辰燕行詩書帖에는 적어도 5첩 이상의 작품이 포함된다.<sup>3</sup>

본고에서는 먼저 1784년 진하검동지사행을 배경으로 제작된 甲辰燕行詩書帖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시화첩 위에 쓰인 고유 표제에 따라 그 구성과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주요 연구 대상이 되는 서화 작품 대부분이 강세황의 작품인 점을 감안하여 그의 연행 활동 및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하되, 시화첩에 함께 엮인 이회지와 이태영의 시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당시 사행에 대한 연행록이 별도로 전하지 않은 관계로 1784년 연행사가 거쳐 갔던 중국 사적과 연경에서의 활동 및 작품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사 강세황이 연경에 이르는 도중 연로와 연경에서 본 일부 사적을 그린 中國實景은 조선 후기 연행사절이 壯觀 또는 奇觀으로 꼽았던 곳으로 아직 구체적 정보가 밝혀진 바 없어 현 지답사를 통한 관련 자료를 비교·검토할 것이다. 이는 시화첩 위에 그려진 개별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명칭을 비정하는 데 필수적 선행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

2 지금까지 1784년 동지사행 관련 시화첩에 대한 연구는 1988년 邊英燮 교수가 〈서산누각도〉, 〈고죽성도〉 등 일부 작품을 ‘中國紀行帖’이라 명명하여 소개한 이래 이원복 선생이 1998년 「豹庵 姜世冕의 중국기행첩」이라는 題下에 절두산순교박물관 소장 詩帖 일부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2帖을 지면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2004년 초에는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포암 강세황 전시와 도록이 발간되어 대학박물관 소장본 2첩 중 일부와 분철 작품이 공개되었다. 邊英燮, 『豹庵 姜世冕繪畫研究』(一志社, 1988), pp. 118-120; 이원복, 「豹庵 姜世冕의 중국기행첩(1)」, 『韓國古美術』10(한국고미술협회, 1998. 1·2), pp. 36-45; 同著, 「豹庵 姜世冕의 중국기행첩(2)」, 『韓國古美術』11(한국고미술협회, 1998. 3·4), pp. 44-51, 80; 『豹庵 姜世冕』(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2004).

3 〈표 1〉에서는 본문에서 주로 다룰 甲辰燕行詩書帖 중 5첩을 비롯하여 기록이나 분철되어 전하는 進賀謝恩兼冬至使行과 관련한 작품 목록을 사행의 주요 일정과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는 그동안 개별 작품으로 간주되었던 甲辰燕行詩畫帖 각 첩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강세황의 연행 관련 작품에 대한 기록적 가치와 회화사적 의의를 찾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표 1 1784-1785년 進賀謝恩兼冬至使行 관련 작품 목록

| 작품명       | 구성  | 소장처 및 근거기록          | 제작시기                 | 주요내용                         |
|-----------|---|---------------------|----------------------|------------------------------|
| 《樞路三奇帖》   | 詩: 三使<br>書: 강세황<br>〈계문연수도〉, 〈서산도〉,<br>〈고죽성도〉, 〈강녀묘도〉    | 개인                  | 1784. 11-12          | 연행 노정의 실경                    |
| 《西山樓閣圖》   | 詩書: 강세황 (분철화폭)  | 개인                  |                      |                              |
| 《夷齊廟圖》    | 詩書: 강세황 (분철화폭)  | 통도사성보박물관            |                      |                              |
| 《瀛臺奇觀帖》   | 詩: 三使<br>書: 강세황 〈영주누각도〉,<br>〈영대빙희도〉, 〈석국도〉<br>이취지 〈노송도〉 | 개인                  | 1784. 12             | 연경 瀛臺冰戲                      |
| 《壽域恩波帖》   | 詩: 三使<br>발문: 강세황  | 철두산순교박물관            | 1784. 12-<br>1785. 1 | 千叟宴 등<br>연경內 주요 활동           |
| 《金臺弄翰帖》   | 中國歷代詩: 강세황筆<br>발문: 博明                                   | 경남대 학교박물관<br>데라우찌문고 | 1784. 12             | 燕京에서 淸人과<br>交遊               |
| 《有能爲也帖》   | 詩: 이취지, 강세황, 淸人   | 望漢盧 舊藏              | 1785. 1-2            |                              |
| 《扇面枯木竹石圖》 | 강세황 (扇面 형식)   | 극림중앙박물관             | 1784. 11             | 사군자도, 풍속화<br>등 연행에서 작품<br>활동 |
| 瀋陽 제작 시화첩 | 詩: 이취지, 강세황<br>書: 강세황                                   | 이유원, 『林下筆記』         | 1784. 11             |                              |
| 《燕臺弄毫帖》   | 中國歷代詩: 강세황筆<br>書: 강세황의 四君子圖                             | 영남대 학교박물관           | 1785. 1-2            |                              |
| 《墨蘭圖》     | 詩書: 강세황 (분철화폭)  | 개인                  |                      |                              |
| 《三淸圖》     | 강세황 (軸 형식)  | 개인                  |                      |                              |
| 《北燕人物圖》   | 강세황   | 서경순, 『夢經堂日史』        |                      |                              |

## II. 甲辰燕行詩畫帖의 현황 및 구성

### 1. 三使의 詩畫로 구성된 李徽之家藏帖

1784년 동지사행을 배경으로 제작된 甲辰燕行詩畫帖 중 정사 李徽之 문중에서 소장했던 3첩 중 《壽域恩波帖》은 절두산순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sup>4</sup> 《瀛臺奇觀帖》과 《檣路三奇帖》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5</sup> 이들 각 첩에는 內題로 각각 ‘壽域恩波’, ‘瀛臺奇觀’, ‘檣路三奇’라는 大字가 쓰여 있어 이를 통해 각 권의 세부 명칭을 구분할 수 있다. 각 시화첩은 비슷한 크기의 오동나무로 표장하고 내제와 동일한 표제를 부착하였으나, 대부분 박락되었다(도 1). 그러나 《영대기관첩》과 《사로삼기첩》의 표제 옆에 부착한 ‘老浦先祖遺墨一地’, ‘老浦先祖遺墨一人’이라는 副題는 비교적 후대 것으로 이휘지의 후손이 임의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화첩 내 이휘지의 제시 뒤에 찍힌 그의 인장 위에 避藏紙를 붙인 점에서도 뒷받침된다(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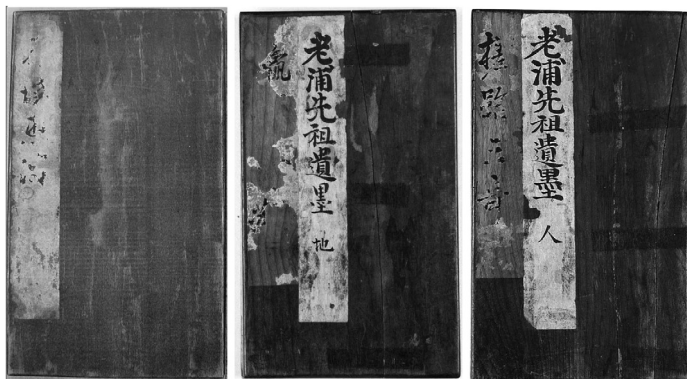
이휘지 家藏 시화첩 중 天帖에 해당하는 《壽域恩波帖》은 내제를 포함하여 총 15폭으로 구성되었으며, ‘壽域恩波’라는 내제는 제1폭부터 제2폭에 걸쳐 내제를 연이어 쓴 다른 첩과 달리 제1폭과 제15폭에 각각 ‘壽域’과 ‘恩波’를 나누어 썼다(도 2). 《수역은파첩》에는 그림은 없으며, 정사와 부사가 쓴 千叟冥詩, 연경 관소에서 三使의 수창시와 그에 대한 제발, 그리고 연경 천주당 중 南堂을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地帖에 해당하는 《瀛臺奇觀帖》은 내제를 포함하여 총 9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폭과 제2폭에 걸쳐 ‘瀛臺奇觀’이라는 시화첩 內題를 예서 大字로 썼다. 내제의 서체는 강세황이 당시 사행에서 예서로 쓴 지본묵서 《玉河謾筆》(22×52.5cm)과 같은 필체로 좋은 비교가 된다.<sup>6</sup> 그리고 태역지 中海 水雲樹와 南海의 瀛臺를 각각 그린 제3폭 《瀛州樓閣圖》, 제4폭 《瀛

<sup>4</sup> 이원복 선생은 이휘지 家藏 시화첩 《영대기관첩》과 《사로삼기첩》의 부제 ‘老浦先祖遺墨一地’, ‘老浦先祖遺墨一人’을 근거로 절두산순교박물관 소장 《수역은파첩》을 이휘지가장 시화첩 중 天帖으로 간주하였다. 이원복, 앞의 논문, (1998. 1. 2), p. 41.

<sup>5</sup> 이휘지 가장 시화첩 2점은 최근까지 문중 후손이 보관하였지만, 2008년 7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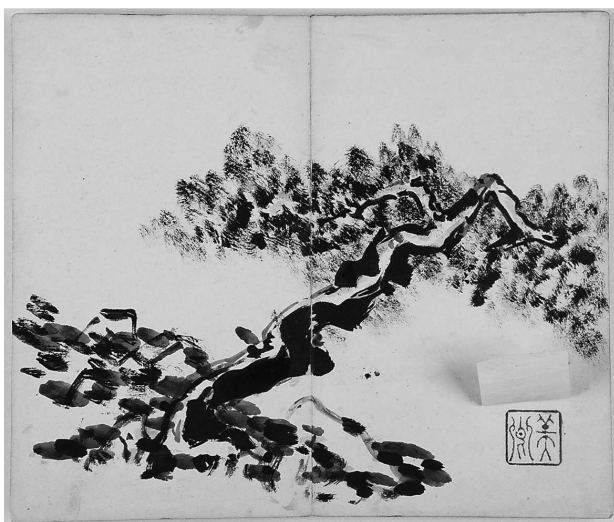
<sup>6</sup> ‘玉河謾筆’은 1660년 동지사의 부사로 연행하였던 姜栢年(1603-1681)이 옥하관에 머물면서 쓴 『玉河謾錄』을 써서 후손들에게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을 당부하였던 점을 염두에 두고 쓴 작품으로 보인다. 『豸菴遺稿』卷5, 「敬書玉河謾錄下」.



도1 《壽域恩波帖》, 《寫臺奇觀帖》,  
《樞路三奇帖》表題 현황  
각 22.7×13.2cm, 22.3×13.3cm,  
23.3×13.8cm



도2 강세황筆, 《壽域恩波帖》제1폭과 제5폭 內題, 紙本묵서, 各 폭 22.7×26.4cm, 철두산순교박물관 소장



도3 이취지, 《老松圖》, 《寫臺奇觀帖》  
제8폭, 紙本수묵, 22.3×26.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臺水(臺圖)와 정사·부사·서장관의 순서로 각각 쓴 그림에 대한 제시 3폭, 그리고 이회지와 강세황이 각각 그린 〈老松圖〉와 〈石菊圖〉2폭이 이어져 있다. 특히 제8폭 〈노송도〉는 갑진연 행사화첩 내에 있는 이회지의 유일한 회화작품으로 주목된다(도3). 이 작품에서 이회지는 전형적인 사인화풍의 소나무를 거침없는 분방한 필력과 구도로 담박하게 묘사하였는데, 송엽 수지법에서 까칠한 秀筆 효과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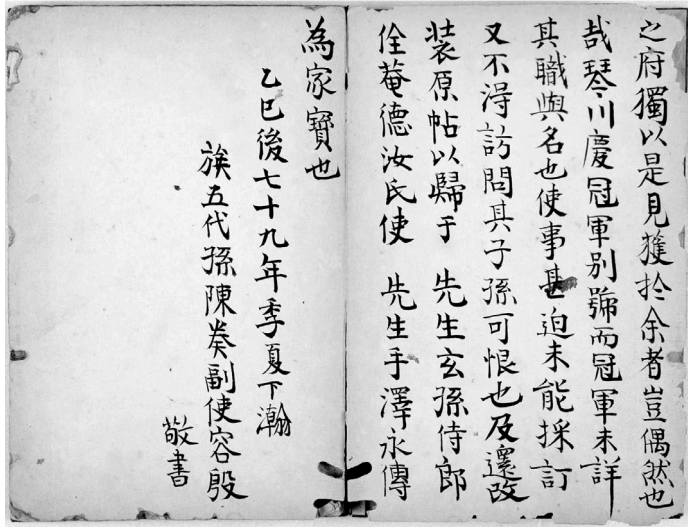
人帖에 해당하는 《槎路三奇帖》은 총 16폭으로 구성되었는데, 정사 이회지가 쓴 ‘槎路三奇’라는 內題가 두 폭에 걸쳐 행서 대자로 쓰여 있다.<sup>7</sup> 이 시화첩은 중국의 승경을 그린 〈蔚門煙樹圖〉, 〈西山圖〉, 〈孤竹城圖〉, 〈姜女廟圖〉 네 폭과 정사·부사·서장관의 순서로 각 그림에 부친 시문 10폭으로 구성되었다.<sup>8</sup> 다만 〈강녀묘도〉에 대한 제시는 이회지 것만 전한다. 《槎路三奇帖》의 네 폭 그림에는 《영대기관첩》과 달리 그림 위에 관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림 그린 이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 그러나 현재 분철되어 전하지만, 강세황의 인장과 화제가 뚜렷이 있는 〈西山樓閣圖〉, 〈夷齊廟圖〉 화면 구성과 《槎路三奇帖》의 〈서산도〉와 〈고죽성도〉가 매우 유사하여 강세황 화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李徽之家藏 시화첩과 함께 당시 사행에서 제작한 이회지의 시첩 한 점이 최근 공개되어 주목된다. 시첩은 시화첩과 달리 紙本으로 장황하였고, 시첩 크기는 위의 시화첩과 비교했을 때 길이가 약간 짧다. 시첩의 첫머리에는 1863년 진주사행의 부사로 연행하였던 李容毅(1826-?)이 연경의 書肆에서 수행 아전 한 명이 우연히 구득한 묵첩 한 점을 얻어 그 원본을 改裝하여 이회지의 현손 李德汝에게 주어 가보로 전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제발을 1864년 6월 하순에 적어 이 시첩의 유전 경위를 알 수 있다(도4). 내용은 이회지가 요동별판에서 서장관 이태영의 운을 따라 행초로 쓴 〈遼野次書狀韻〉 1首를 포함한 기행경물에 대한 절구 3편과 琴川(江蘇常熟) 출신의 太史(慶冠軍)에게 1785년 고려관 南館에서 써준 〈千叟宴詩〉 1首로 구성되었다.<sup>9</sup> 마지막 서쪽 좌측에 ‘琴川之人珍賞’이라는 주문방인을 통해 太史가 원래 이

7 內題 ‘槎路三奇’의 좌측 하단에 [內閣學士議政大臣耆社大臣原任太學士李徽之印]이라는 인장에 의해 이회지가 쓴 것으로 확인된다.

8 《槎路三奇帖》내의 각 화폭의 세부 그림 제목은 〈姜女廟圖〉를 제외하고 시화첩 내의 시와 일치하는 『豹庵遺稿』의 해당 시의 제목에 근거하였다.

9 “使燕房吏偶於書肆中購一墨帖示余，乃先生筆蹟，而字畫澗勁印章朱抹燦然如昨，而其文即歷行景物數絕及贈琴川太史詩一首也。衣襟雖縹緲，墨痕若新潑，中州人士之是今是玩，蓋可知已。況充棟圖書之府獨以是見獲於余者，豈偶然也哉。琴川慶冠軍別號，而冠軍未詳其職與名也，使事甚迫未能詳訂，又不得詰問其子孫可恨也。及還改裝京帖以歸于先生玄孫侍郎侄菴德汝氏，使先生手澤永傳爲家寶也。乙巳後七十九年季夏下瀚，族五代孫陳奏副使，容毅敬書。”



도4 이회지 연행시첩 중  
李容殷의 발문 지본복서,  
16.8×22.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시첩을 소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燕京에서 제작된 姜世晃筆 시화첩

경남대학교박물관 데라우찌문고 소장 《金臺弄翰帖》에는 그림은 없으며, 강세황의 제발과 그의 서체로 옮긴 중국 역대 문인들의 시문 9수, 그리고 청 학자 博明(1730년대-1788)의 발문이 포함되었다.

《금대농한첩》은 앞의 이회지 가장본과 같은 형식으로 오동나무로 표장하고, 그 위에 ‘金臺弄翰’이라는 표제를 별지에 붙였다.<sup>10</sup> 표제 아래 ‘自怡悅齋圖書’라는 藏書印이 있는데, 여기서 自怡悅齋는 金漢泰(1762-?)의 號로 그가 이 서첩을 소장했던 것으로 보인다(도5). 서첩의 제1쪽과 제2쪽에 걸쳐 쓴 內題 ‘自怡悅齋’ 화면 위에 강세황의 인장과 함께 ‘金漢泰印’과 ‘景林’이라는 방인이 있다(도6). 여기서 景林은 김한태의 字로, 그는 역관 가문인 牛峰 金氏 출신으로 1786년 式年試 譯科에 합격하였고 서화에 호가로서 단원 김홍도를 후원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김한태는 1784년 스물세 살 나이에 연경에 왔는데, 당시는 그가 역과에 합격하기 전이므로 漢學譯官이던 부친 金履端(1727-?)의 배경으로 사행에 동행하였을 것이

<sup>10</sup> 2004년 예술의 전당 서예전시판에서 발행한 『표암 강세황』 도록에서는 이 서첩의 명칭을 ‘金齊弄翰帖’이라 소개하여 지금까지 통용되어 왔으나, 작품 명칭은 ‘金臺弄翰帖’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도5 《金臺弄翰帖》表題와 [自怡悅齋圖書] 藏書印  
23.5×14.2cm, 경남대학교박물관 데라우찌문고

도6 강세황筆, 《金臺弄翰帖》제1폭과 제2폭 내제  
(自怡悅齋)(좌우 하단 강세황, 김한태 인장),  
각 폭 23.5×28.5cm, 경남대학교박물관  
데라우찌문고



다. 《금대농한첩》 제12폭과 제13폭에서 강세황은 “金生이 조그만 서첩을 가져 와서 내게 ‘自怡悅齋’ 네 글자를 써달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김생은 金漢泰로 강세황이 서첩의 내제로 ‘自怡悅齋’를 쓰게 된 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서첩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제9폭 董其昌의 시 「贈張上明人」 제2수 아래 “甲辰季冬豹翁書于燕館”이라 하여 1784년 겨울 연경의 관소에서 썼음을 밝혀 강세황의 연행과 관련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첩 제13폭에 청나라 학자 西齋博明이 쓴 발문에 1784년 12월 24일 자신의 서재에서 표암이 과거 한림들의 寶墨을 고아한 정경으로 베껴 적으니 이에 後書한다는 내용을 적었다.<sup>12</sup> 박명은 표암에 대해 耆英의 영광을 안은 인물로 황제의 성

<sup>11</sup> “金生以小帖求余書自怡悅齋四字，遂信筆以副之，凡人之所以自怡悅者，各自不同未知金生之自怡悅者在何處(후략).” 《金臺弄翰帖》 제12폭과 제13폭 강세황 발문.



도7 강세황筆, 《燕臺弄毫帖》제1폭 내제, 각면 22.0×26.0cm,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절에 참여하여 관소에서 그린 수묵화와 서법이 수려하고 필력이 강직하다고 찬탄하였다. 또한 김한태에 대해서는 보배로운 서화 골동을 흠모하고 숭앙한다고 하여 그의 작품 보는 안목을 높여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발문을 통해 詩帖의 제작 시기는 물론 강세황과 김한태가 博明의 서재 測巖軒을 방문하여 墨緣을 맺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sup>13</sup>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燕臺弄毫帖》(화폭 33.0×64.5cm; 각면; 26.0×22.0cm)은 현재 표장에서는 ‘豹翁書畫帖’이라 표제되었다.<sup>14</sup> 본래 오동나무로 장황되어 있던 것을 근래에 비단으로 改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본래 12폭이던 시화첩을 2폭씩 한 면으로 꾸며 총6폭을 만들었는데, 한 면의 작품 크기는 앞서 살펴본 다른 작품과 대체로 일치한다(도7). 구성은 제1폭에 내제를 배치하였고, 중국 역대 문인의 시를 강세황 서체로 옮겨 썼으며, 四君子圖를 제3폭과 제4폭에 걸쳐 함께 장황하였다.

시화첩 제9면에 강세황이 옮겨 적은 陳與義(1090-1138)의 「絕句」 아래 “乙巳首春書”라는 관지를 통해 시화첩이 1785년 정월에 제작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제11면 元好問(1190-1257)의 시 “楊柳”를 옮겨 쓴 다음 “豹菴老人戲書于燕館”이라는 관지를 적어 강세황이 연경 관소에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sup>12</sup> 西齋 博明은 滿洲鐵嶺藍旗人으로 1752년 진사가 되어 散館授編修로 『續文獻通考』의 수정에 참가하였고, 兵部員外郎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그의 해박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보여주는 『西齋偶得』을 비롯하여 『西齋特輯遺』, 『風城瑣錄』 등이 있다. 王錦光·李勝蘭, 「博明和他的光學知識」, 『自然科學史研究』, 1987年第4期

<sup>13</sup> 《金臺弄翰帖》제14폭과 제15폭 博明 발문의 원문 및 해석은 정은주, 「朝鮮時代 明清使行 關聯 繪畫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 188-189 참조.

<sup>14</sup> 현재 작품의 상태는 녹색색 비단에 능화문비단 표지로 근래 개장하고 ‘豹翁書畫帖’이라 표제하였으나, 강세황이 쓴 內題에 따라 본문에서는 ‘燕臺弄毫帖’이라 명명하여 전개 하려 한다.



도8 강세황, 〈묵난도〉, 《燕臺弄毫帖》 제7면, 22.0×26.0cm,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도9 강세황, 〈石菊圖〉, 《燕臺奇觀帖》 제9쪽, 지본수묵, 22.7×26.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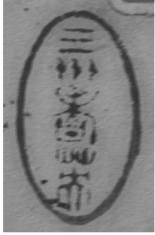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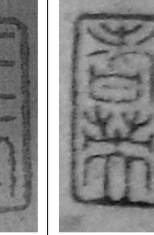
《燕臺弄毫帖》 제3쪽 〈묵매도〉, 〈묵죽도〉와 제4쪽 〈묵난도〉, 〈묵국도〉를 차례로 각각 한 화면에 그렸다(도8). 이는 《영대기관첩》 제9쪽 〈石菊圖〉(도9), 개인소장 〈묵란도〉, 귀국 도중 봉황성에서 그린 〈三淸圖〉와 함께 사군자도를 소재로 그린 작품 중 1785년 기년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강세황 만년에 그린 사군자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sup>15</sup>

《燕臺弄毫帖》 제1쪽 위에 있는 ‘三世耆英’이라는 주문인장은 조부 姜栢年(1603-1681)과 부친 姜颯(1650-1733)에 이어 1783년 강세황까지 三代가 耆老所에 들어간 후 제작한 것으로, 이들 삼대가 모두 동지사로 연행했던 점도 강세황이 연행 관련 시화첩에 적극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sup>16</sup>. ‘三世耆英’ 인장은 〈표 2〉와 같이 방형 및 타원형 주문인 두 종류가 있다. 타원형 인장은 같은 시기에 제작된 《金臺弄翰帖》 중 제1쪽과 제6쪽, 《燕臺奇觀帖》 제3쪽에 각각 찍혀 있고, 방형인장은 《壽域恩波帖》 제3쪽, 제12쪽, 제15쪽과 개인소장 작품 〈夷齊餽圖〉, 〈西山樓閣圖〉, 〈墨蘭圖〉에 각각 찍혀 있다. 결국 ‘三世耆英’이란 인장은 강세황의 연행과 관련한 시화첩에서 동시에 나타나 이 시기 작품 연구에 도움이 된다.

<sup>15</sup> 강세황의 〈三世耆英〉 인장과 ‘蘭’이라는 화제가 있는 개인소장 〈묵란도〉는 《燕臺弄毫帖》 제7면 〈묵란도〉와 구도와 화풍이 거의 유사하다. 그밖에 1784년 겨울 연행 노정 중 義州(龍灣)에서 喬柯奇石을 그린 〈扇面枯木竹石圖〉에 대해서는 변영섭, 앞의 책, p. 146 참조.

<sup>16</sup> 『현종실록』 권21, 14년 12월 18일; 『숙종실록』 권63, 45년 4월 18일; 『정조실록』 권15, 7년 5월 9일. 강세황의 조부 강백년은 1653년 동지부사로, 부친 강현은 1701년 고부사로 연행하였다.

표 2 甲辰燕行詩書帖 내 [三世耆英] 印章

|   |   |   |   |  |
|---|---|---|---|--|
|  |  |  |  |  |
| 《燕臺弄毫帖》<br>제1쪽  | 《燕臺奇觀帖》<br>제3쪽  | 《金臺弄翰帖》<br>제1·6쪽  | 《壽域恩波帖》<br>제3·12·15쪽  | 개인소장<br>《墨蘭圖》《夷齊廟圖》<br>《西山樓閣圖》   |

### III. 燕行路程에서 그린 中國實景

18세기 후반 연행은 조선 문인들에게 중국의 신문물을 접하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강세황이 1778년 연행하는 朴齊家(1750-1805)에게 주었던 별장사에서 중국에서 태어나지 못하여 견식을 넓힐 수도 없고, 중국 문인들을 만나 교류하지 못하고 늙음을 한탄하였던 것도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sup>17</sup>

이 시기 燕行은 강세황과 같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중국의 석학과 만나 필담으로 교류하고 선진문물을 배워오는 장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명·청 교체기 朝天圖가 생사의 기로틀 오갔던 위험한 해로노정을 부각시켜 묘사되던 것과 달리 燕行圖에서는 시행 노정에서 접한 다양한 경물이 등장한다.<sup>18</sup> 甲辰燕行詩書帖 내의 실경도 역시 연행도의 일종으로, 시행의 부사로 참여했던 강세황이 직접 그려 詩書畫가 조화를 이루고, 공필과 채색이 가미된 회원회풍의 다른 연행도와 달리 수묵 위주의 남종문인회풍이 두드러져 강세황 만년 실경 산수회풍 연구에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sup>17</sup> “我有平生恨，恨不生中國，所處皆避僻，無由恢見識，願逢中華士，豁我胸茅塞，躋踏成白首，何能生羽翼（후략）.” 成均館大學校博物館 編纂，『權墨』下，「贈別恩叟赴盛京」（靑文社，1981）.

<sup>18</sup> 정은주, 앞의 논문(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 67-209; 동저, 「明清交替期 對明 海路使行記錄書 研究」, 『明清史研究』 27(명청사학회, 2007), pp. 189-228; 동저, 「庚辰冬至燕行과 《瀟陽館圖帖》」, 『明清史研究』 25(명청사학회, 2006), pp. 97-138; 박은순, 「朝鮮後期 『瀟陽館圖』 畫帖과 西洋畫法」, 『미술자료』 58(국립중앙박물관, 1997), pp. 25-55.

강세황 일행의 연행 노정은 압록강을 건너 柵門, 鳳凰城, 遼東, 盛京(瀋陽), 小黒山, 廣寧, 山海關, 深河驛, 永平府, 豐潤縣, 玉田縣, 薊州, 通州, 北京에 이르는 육로노정으로 국내 노정과 합하면 총 3,100리이며, 연경 관소에서 체류기간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다.<sup>19</sup>

강세황이 연행 도중 심양에서 폭설을 만나 그곳에서 정사 이회지와 酬唱하고 남긴 서화첩이 일찍이 李裕元(1814-1888)의 서가에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槎路三奇帖》 외에도 강세황이 심양 일대 사행로의 실경을 그린 서화첩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sup>20</sup>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甲辰燕行詩畫帖 중 산해관에서 연경에 이르는 중국실경도가 포함된 《槎路三奇帖》의 그림 4폭과 제시를 바탕으로 1784년 동지사행이 거쳐 갔던 연행 노정의 실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또한 《사로삼기첩》 화면 위에는 강세황의 관자가 전혀 없어 동일 장소를 그린 강세황 개별 작품의 화풍과 비교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다.

《사로삼기첩》 제3폭 <薊門烟樹圖>는 연경으로 향하는 사행노정 중 풍운현에 도착하기 전부터 계주까지 2백여 리에 걸쳐 펼쳐지는 신비한 경관을 그린 것이다(도 10). 薊門烟樹는 일종의 자연현상으로 문득 바라보면 연기 또는 안개가 호수에 넓게 떠 있는 사이로 나무 그림자가 섬처럼 얽혀 있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여 일찍이 燕京八景 중 하나로 꼽혔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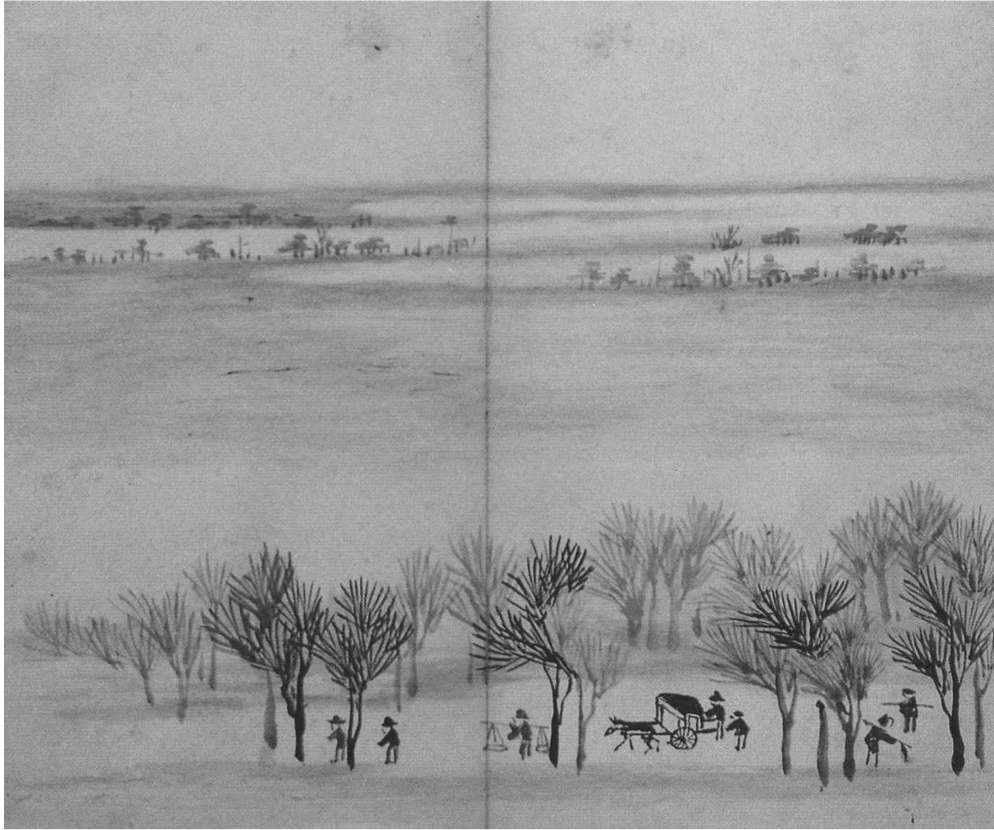
<계문연수도>에 대한 서장관 이태영의 제시에서 “일이 많은 조화옹이 허깨비 장난을 하여, 길손으로 하여금 앉아서 돌아갈 길 잊게 하네”라고 하였던 것처럼 삼사가 계문연수에 대해 쓴 시는 그림에서 보이듯 계문연수의 신기루 같은 분위기 속에 미혹되어 갈 길을 두고 머뭇거리는 심경을 잘 묘사하였다. 특히 정사 이회지가 제시에서 龍眠 李公麟이라 할지라도 변화무쌍한 烟樹 장면을 그리기 어려울 것이라 비유한 점이 흥미롭다.

<계문연수도> 화면 역시 이곳의 독특한 자연현상을 반영하여 선묘를 중심으로 하는 섬세한 표현보다 인물과 나무 묘사를 굵직한 농묵과 담묵으로 물골 처리하여 안개 속 비경과 조화를 이루었다. 특히 계문에서 가장 많은 樹種인 버드나무의 앙상한 수지법은 강세황이 그린 <영대빙희도> 중 배경에 나타나는 일부 수목 표현과 유사해 보이는 데, 나무의 軀幹을 표현할 때 측필을 이용한 점과 가지 굵기가 큰 변화 없이 위로 몽툰하게 뻗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인물묘사에서 물골법으로 처리하여 먹의 농담으로 변화를 준 점도 유사성을 보

<sup>19</sup> 『通文館志』卷3, 「事大」上, 中原進貢路程: 全海宗, 「清代韓中關係考」, 『韓中關係史研究』(一潮閣, 1970), pp. 68-69. 주 22) 연행 특에 근거한 소요 여정 참조

<sup>20</sup> “以副使赴燕, 瀋陽過大雪, 與上使李老浦徵之唱酬, 且有畫, 其帖曾在余衷.” 李裕元 『林下筆記』 권4, 「華東玉糝編」, 扇子樓

<sup>21</sup> 金景善, 『燕轅直指』 권2, 「出疆錄」, 薊門烟樹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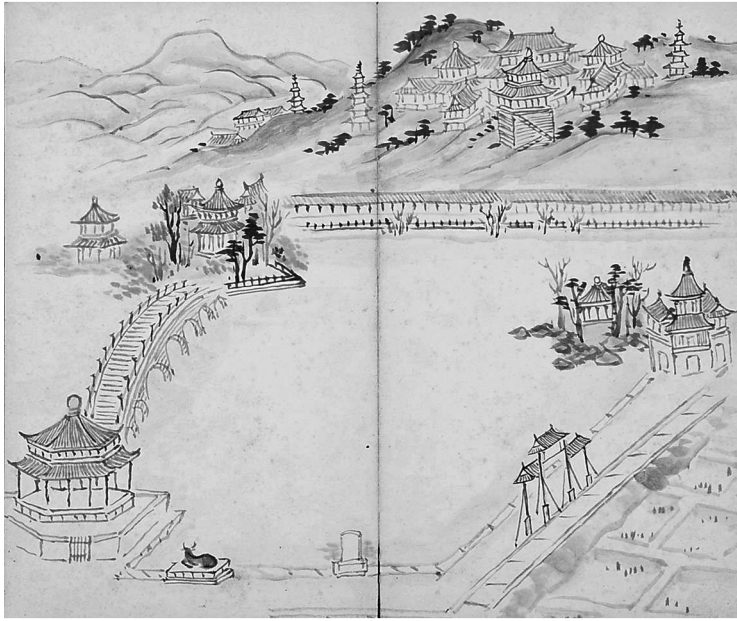


도10 강세황, 《蕪門烟樹圖》, 《槎路三奇帖》제3폭, 지본수묵, 23.3×2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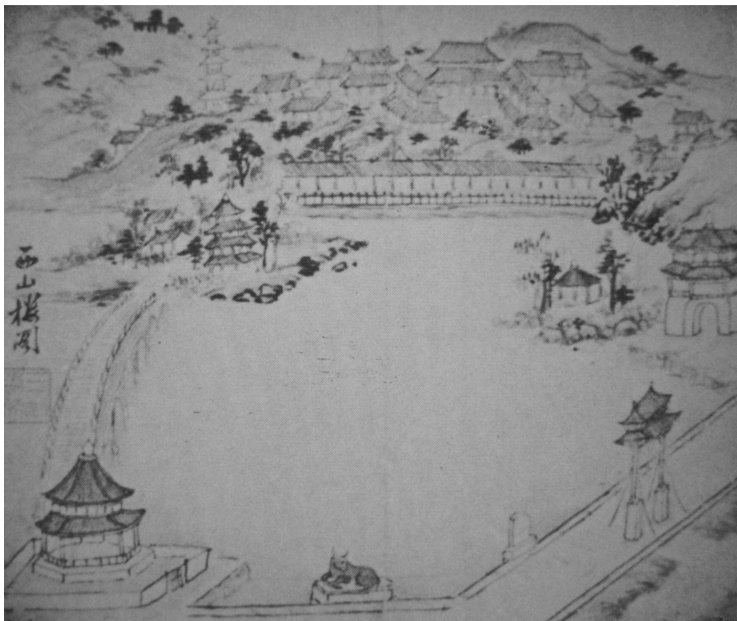
인다(도19).

《사로삼기첩》제4폭 《西山圖》는 1750년 시건하여 1764년에 준공된 淸의 3대 황가 원림 중 하나인 淸漪園 경내 萬壽山의 화려한 전각을 배경으로 근명호를 둘러싼 경물을 조감하여 그린 것이다(도11). 화면의 전체적 구도는 1860년 영불연합군에 의해 소실된 청의원을 1888년 중건하여 慈禧太后(1835-1908)가 '頤和園'이라 개칭한 후의 모습을 그린 《頤和風景圖》와 비교할 수 있다(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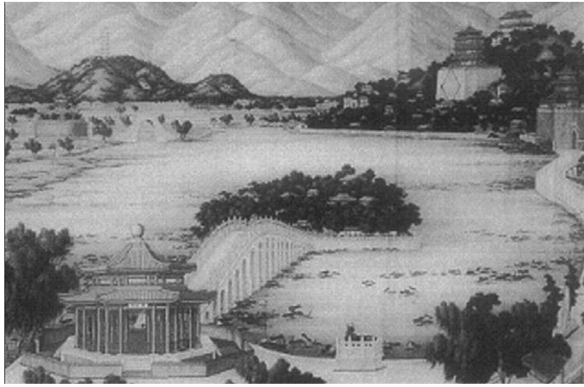
화면 상단 만수산의 화려한 형세 아래 동서축으로 長廊이 보인다. 장랑은 1755년 시건되었고, 긴 회랑을 따라 대개 건축투시도법에 기초를 둔 역사화 및 장식화가 다양하게 그려져 이곳을 찾았던 강세황도 장랑의 서양화법에 기초한 그림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랑 동측에 위치한 文昌閣은 文運을 관장하는 文昌帝君의 소상을 모셨던 곳으로 1750년(건륭 15



도11 강세황, 〈西山圖〉,  
《榕路三奇帖》 제4쪽,  
자본수묵,  
23.3×2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13 강세황, 〈西山樓閣圖〉,  
자본수묵, 크기미상,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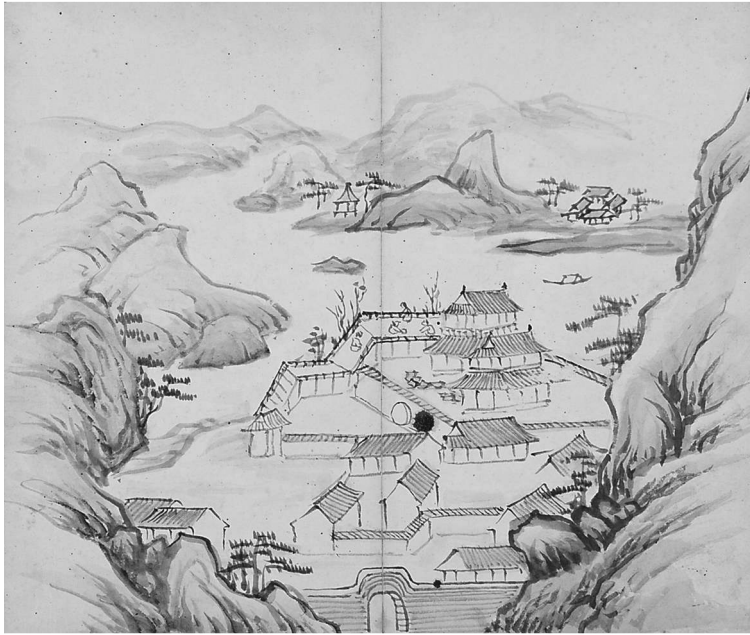
도12 작자미상, 《颐和風景圖》, 1888년 이후

년)에 중앙의 3층 누각을 중심으로 사방에 角廊을 人字形으로 세운 독특한 건물이다. 목패루를 지나 아래쪽에 1751년 건륭 어제로 곤명호의 연혁을 기록한 「萬壽山昆明湖記」를 새긴 석비가 서 있고, 곤명호 東岸에는 銅牛 좌상이 있다.<sup>22</sup> 호수와 면한 팔각 중첩 구조의 廓如亭은 건륭제가 시를 짓고 酒會를 베풀던 곳이며, 호수를 가로질러 동정산과 환여정을 연결하는 석교는 繡漪橋이다. 강세황은 《사로삼기첩》 제11쪽 〈서산도〉에 대한 제시에서 서산의 탈속적 풍경을 감히 시나 그림으로 형용해 낼 수 없어 교두에 우두커니 앉아 석양을 보낸다고 읊었는데, 그림은 수의교에서 풍광을 조망하며 시화를 구상하는 강세황의 모습을 떠올린다.

서산의 실경을 그린 그림으로 '西山樓閣'이라는 화제와 강세황의 '三世耆英' 인장이 있는 〈서산누각도〉가 한 점 더 전한다(도 13).<sup>23</sup> 이 작품은 직접 공개된 바 없어 소장처와 화첩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위의 《사로삼기첩》 제4쪽 〈서산도〉와 비교하면, 화제가 있는 〈서산누각도〉의 경우는 기본 경물군의 위치와 형태에 대한 대강만 표현하여 현장감이 떨어지며, 그림의 준법과 건축 묘사에서 차이점이 산견된다. 경물군의 위치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환여정의 옥우표현에서 음영을 가미하였고, 곤명호를 등지고 앉은 銅牛, 각을 틀어 위치한 건물어제비, 조선의 영은문처럼 그려진 목패루, 문창각의 건축 구조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세부 차이는 기억에 의존하여 후에 그리면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sup>22</sup> 銅牛의 등에는 1755년(건륭 20년)의 어제시를 古篆體로 새겼는데, 夏禹가 물을 다스릴 때 銅牛가 頌祝을 전하여 물을 안정시킨 상서로움을 기록한 것이다. 金景善 『燕巖直指』 권5, 「留館錄」下, 鐵牛記; 傅連仲 「昆明湖畔銅牛」, 『紫禁城』, 1999年 第2期.

<sup>23</sup> 변영섭 교수의 학위논문도 53-1과 도 53-2에 소개된 자료는 각각 화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게재하였으나, 그 후 단행본에서 소개한 〈서산누각도〉는 화제가 없는 동일 도판에 각각 다른 도판 번호를 부여하여 게재하였다. 邊英燮 「豹庵 姜世冕 繪畫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p. 366-367; 同著, 앞의 책 (一志社 1988), pp. 267-269 도판 참조.



도 14 강세황, 〈孤竹城圖〉,  
《歸路三奇帖》 제 1쪽,  
지본수묵,  
23.3×2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6 강세황, 〈庚齊廟圖〉,  
지본수묵  
26.5×26.4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도15 중국문화혁명으로 파괴되기 이전 夷齊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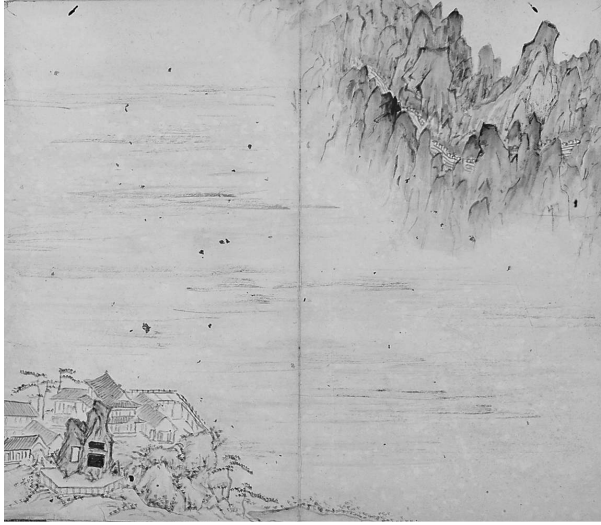
《사로삼기첩》 제5폭 〈孤竹城圖〉는 산해관에서 영평부 사이 背陰堡에 위치한 夷齊廟를 그린 것이다(도14). 이제묘는 伯夷와 叔齊 소상을 모셨던 사당으로 조선 사절은 백이와 숙제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제묘 뒤 절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고사리로 나물이나 국을 끓여 먹는 것이 상례였다.<sup>24</sup> 중국문화혁명으로 파괴되기 이전 이제묘의 건축군을 찍은 사진을 통해 경 사진 關道를 따라 올라가는 청풍대 등 화면 속景物 위치가 실물과 유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15).<sup>25</sup> 〈고죽성도〉에 대한 삼사의 제시와 그림 정황에서 강세황 일행이 이곳을 찾을 당시 이제묘 북쪽으로 난하가 흐르고 백이와 숙제의 높은 절개와 어울리지 않게 祠廟의 규모는 화려하고 웅장하였던 것 같다. 반면 화면 중앙 난하 건너편 원산을 배경으로 백이와 숙제의 부왕 孤竹君의 소상을 모신 孤竹君廟는 황량한 분위기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에는 고죽성을 소재로 제작한 〈夷齊廟圖〉가 한 폭 전한다(도16). 〈이제묘도〉 역시 화면 위에 ‘夷齊廟’라는 화제가 있고 그 아래 강세황의 ‘三世耆英’ 주문방인이 나타나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서산누각도〉와 같은 화첩에서 분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철 화폭이 산견되는 점에서 강세황이 이휘지 가장본과 별도의 副本을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묘도〉를 〈고죽성도〉와 비교하였을 때, 화면의 포치법이 매우 유사하여 같은 작품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두 작품은 강세황이 중년에 그린 《松都雜記行帖》과 비교할 때, 이제묘

<sup>24</sup> 朴趾源, 『熱河日記』, 「關內程史」, 7월 27일 계묘조

<sup>25</sup> 18세기 당시 이제묘와 고죽성 일대의 건축군의 구성은 李海應, 『蔚山紀程』 卷4, 復路, 甲子年 2월 8일 참조



도17 강세황, 〈姜女廟圖〉, 《槎路三奇帖》  
제6폭 지본수묵, 23.3 × 2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의 주요 전각과 옥우 표현에서 평행투시도법이 뚜렷이 나타나 그의 말년 작품의 변화상을 보여준다.<sup>26</sup> 〈고죽성도〉의 누각 사이 담장 지붕에 대한 반복적인 짧은 사선 묘사는 강세황의 만년작 《楓嶽壯遊帖》중 〈御場官衙〉의 옥우와 담장 표현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sup>27</sup> 세부를 검토해보면 〈고죽성도〉가 〈이제묘도〉보다 우측으로 치우친 구도이며, 성벽 위의 성가퀴 묘사, 토산의 준법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청담대 위 네 명의 인물묘사에서 〈고죽성도〉는 변화 없는 선으로 정확성과 섬세함이 떨어진 반면, 〈이제묘도〉는 절도 있는 먹의 농담 변화로 선 사용이 세련되고 능숙하다. 두 작품사이에 이러한 세부 표현의 차이는 조금의 시차를 두고 다시 제작한 결과로 추정된다.

《槎路三奇帖》제6폭은 화면에 그려진 경물에 대한 단서를 찾기 어려워 선행논고에서는 임의로 '山水圖'라 지칭하였다(도17).<sup>28</sup> 그러나 이 그림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槎路三奇帖》제16폭에 쓴 이휘지의 제시로 제나라 여인 許孟姜이 長城의 노역에 끌려간 남편 范杞梁을 기다리다 결국 그의 죽음을 알고 순절한 애절한 이야기와 더불어 강녀의 사당을 비추는 달 빛을 바라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姜女廟를 묘사하였다.

<sup>26</sup> 《송도기행첩》의 제작경위와 화첩 순서에 대해서는 김건리, 「豹庵 姜世晃의 《松都雜行帖》研究」, 『美術史學研究』 237・238(한국미술사학회, 2003), pp. 183-211 참조

<sup>27</sup> 《풍악장유첩》의 구성 및 화풍에 대해서는 변영섭, 위의 책, pp. 120-124; 박은순, 『금강산도 연구』(일지사, 1997), pp. 251-259 참조.

<sup>28</sup> 변영섭, 앞의 책, p. 120.

|         |                             |
|---------|-----------------------------|
| 愁風愁雨望悠悠 | 비바람을 근심하며 계속 바라보기를          |
| 郎不歸來死不休 | 시아비 돌아오지 않으니 죽어도 그치지 않았네.   |
| 環環魂驚郎在處 | 여인[姜女]은 지아비 있는 곳에서 혼비백산하였으니 |
| 舊時明月廟空留 | 옛적의 밝은 달 [姜女]廟에 속절없이 머무네.   |
| 老蒲      |                             |

강녀묘는 1594년(만력 22) 산해관 동쪽 望夫石村에서 수리 떨어진 곳에 세워졌는데,<sup>29</sup> 남편을 따라 순절한 맹강녀를 기리기 위해 많은 조선사절이 이곳을 찾아 시문을 남겼다. 강녀묘 正殿인 天后殿 중앙에는 맹강녀의 彩塑像을 모셨고, 天后殿의 후면에는 화면과 같이 2개의 거석이 있다. 그중 남쪽 거석이 맹강녀가 올라 남편을 기다렸다고 전하는 望夫石이다.<sup>30</sup> 비록 화면은 원경으로 넓게 포치하였지만, 화면 속 거석에는 명대 문인들의 시문을 새긴 석판을 넣은 모습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姜女廟圖》의 화면은 산해관 角山長城과 강녀묘의 경물을 좌측 하단 대각선상에 대칭하여 배치하고 바탕을 아득하게 생략하였다. 각산장성의 험한 지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그 일대 사적을 한꺼번에 한 화면에 그려 넣기 위해 파격적인 구도를 사용하였고, 각산장성의 조밀하고 뾰족한 암산을 표현하기 위해 과묵법을 사용하여 음영을 나타냈다. 또한 우뚝 솟은 산 사이를 관통하는 성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자연 요새로써 각산장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사행노정을 고려할 때, 이상의 그림은 산해관 각산장성과 강녀사당을 묘사한 <강녀묘도>, 산해관과 영평부 사이에 위치한 이제묘를 그린 <고죽성도>, 풍운현 이전부터 펼쳐지는 기이한 장관을 그린 <계문연수도>, 연경 청의원을 그린 <서산도>의 순서가 되어야 하지만, 화첩에서는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 IV. 燕行 관련 공적 활동과 瀛臺氷戲

進賀謝恩兼冬至使行的 가장 큰 목적은 동지사행을 겸하여 청 건륭제의 千叟宴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행일정은 1784년 10월에 한양을 출발하였고, 12월 8일 연경에 도착

<sup>29</sup> 『畿輔通志』 卷49, 祠祀.

<sup>30</sup> 강녀묘의 건축 구조는 朴趾源 「銅閣涉筆」, 『熱河日記』 참조

표3 1784-1785년 進賀謝恩兼冬至使行的 燕京 공식일정

| 일정    | 행사     | 장소       | 전거                  |  |
|-------|--------|----------|---------------------|--|
| 1784  | 12. 8  | 연경 도착    | 燕京 南小館              | 『정조실록』, 9년 2월 14일 조                    |
|       | 12. 13 | 궁중 의례 연습 | 禮部 鴻臚寺              |  |
|       | 12. 21 | 瀛臺水戲     | 太液池 南海              | 《영대기관첩》내 그림 2폭                         |
|       | 12. 29 | 除夕宴      | 紫禁城 保和殿             | 『정조실록』, 9년 2월 14일 조                    |
| 1785  | 1. 1   | 朝參禮      | 紫禁城 太和殿             | 『정조실록』, 9년 2월 14일 조                    |
|       | 1. 2   | 歲初宴      | 南海 紫光閣              | 《수역은파첩》 除夜作 三使 脚韻詩                     |
|       | 1. 6   | 千叟宴      | 紫禁城 乾清宮             | 《수역은파첩》 恭記千叟宴詩                         |
|       | 1. 14  | 御宴       | 圓明園 山高水長閣           | 『정조실록』, 9년 2월 14일 조;<br>御製千叟宴詩 手筆印本 발문 |
|       | 1. 15  | 元宵宴(放生宴) | 圓明園 正大光明殿           |  |
|       |        | 燃燈宴      | 圓明園 山高水長閣           |  |
|       | 1. 18  | 御床 아래叩頭禮 | 圓明園 山高水長            | 御製千叟宴詩 手筆印本 발문                         |
| 1. 25 | 回程     | 燕京 출발    | 『정조실록』, 9년 2월 14일 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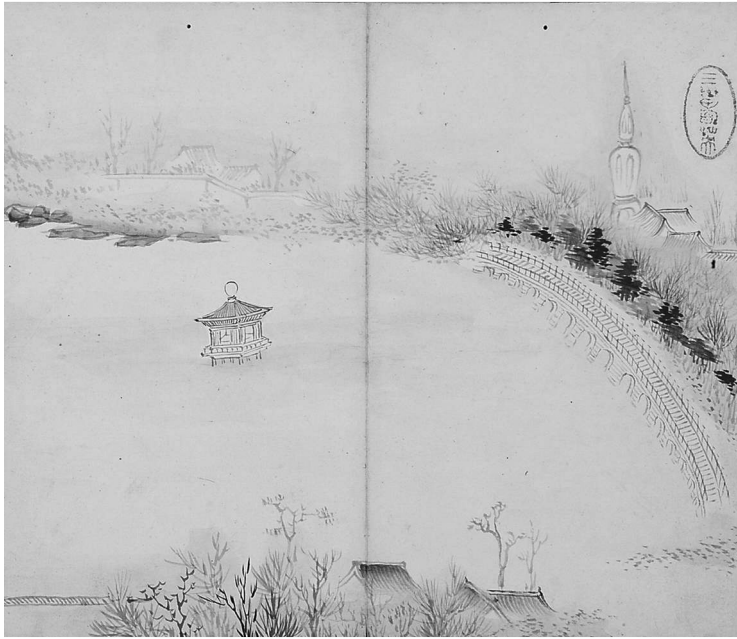
하여 南小館에서 1785년 1월 24일까지 한 달 남짓 머물다가, 1785년 1월 25일 연경을 출발하여 2월 14일 한양에 돌아와 장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1</sup> 당시 동지사행이 연경에서 행하였던 연행관련 공식 행사의 일정 및 내용은 <표 3>과 같다.

강세황 일행의 연경에서 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瀛臺奇觀帖》 제3폭과 제4폭은 연경의 태액지 경관과 1784년 12월 21일 남해에서 조선사절이 건륭제와 함께 참관한 水戲를 묘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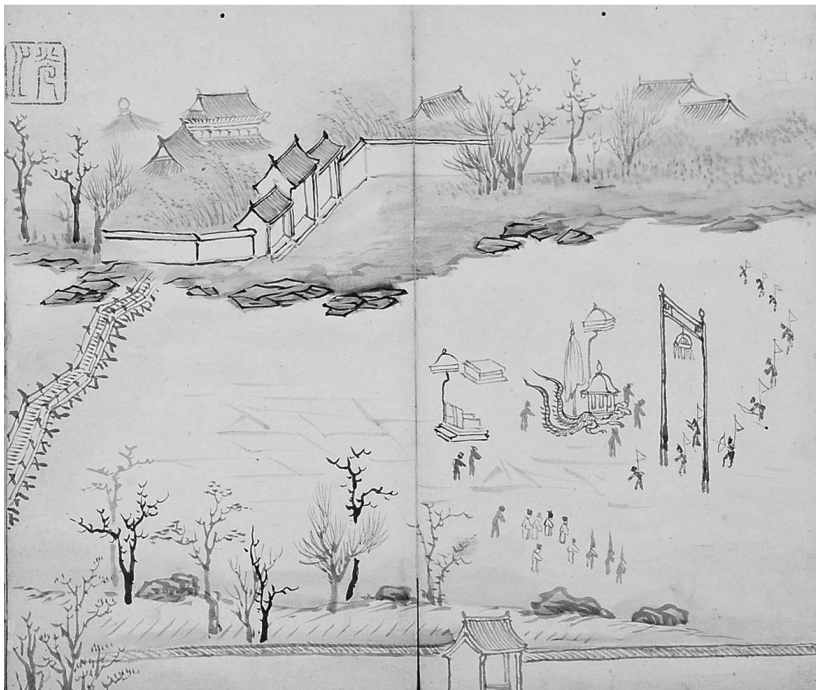
제3폭 《瀛州樓閣圖》 화면에 찍혀 있는 ‘三世耆英’이라는 타원형 주문인장을 통해 강세황의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도 18). <영주누각도>는 燕京八景의 하나로도 유명한 涼亭 水雲榭가 있는 태액지 중해를 전설 속 선경 瀛州에 비유하여 안개가 수면에 깔린 신비한 분위기로 묘사되었다.<sup>32</sup> 화면에서 북해와 중해의 경계를 이루는 석교 뒤로 북해 白塔의 모습은 실제보다 길게 과장되었다.

<sup>31</sup> 『정조실록』 권18, 8년 10월 12일(갑오) 조; 권 19, 9년 2월 14일(갑오) 조 <표 3>에서는 1784년부터 1785년에 걸친 北京 공식일정을 정리하였다.

<sup>32</sup> 연경성의 기초가 되었던 元 大都의 舊制에서는 太液池 남단에 남해와 중해, 북해를 병칭하여 三海라 하였고, 일반적으로 연경 자금성 태액지의 瀛臺를 南海, 지광각 일대를 中海, 五龍亭 일대를 北海라 구분한다.



도18 강세황, 《咸州樓閣圖》, 《咸臺奇觀帖》제3폭, 지본수묵, 22.3×26.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19 강세황, 《咸臺水殿圖》, 《咸臺奇觀帖》제4폭, 지본수묵, 22.3×26.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4폭 《凝臺水戲圖》 그림의 좌측 상단에 ‘光之’라는 주문방인이 선명하게 보여 역시 강세황의 그림임을 알 수 있다(도19). 조선사신은 1784년 12월 21일 새벽녘 西華門 밖에 도착하여 暹羅[태국] 使臣의 앞자리에 반열한 후 황제의 鑾輿를 따라 영대로 이동하였다.<sup>33</sup> <영대빙희도>에서는 영대 주위에 마른 가지가 앙상한 나무를 통해 계절적으로 겨울임을 암시하였고, 주변 바위 중 일부를 농묵으로 강조하여 화면에서 변화를 주었다.<sup>34</sup> 황제가 타고 온 난여와 영대에 이르러 얼음 위에서 타는 氷牀을 용 형상의 용주가 바치고 있는 모습이다. 각기 다른 색깔 옷을 입은 팔기군은 물골법을 이용한 먹의 농담으로 구분하였다.

氷嬉라고도 불리는 水戲는 북방에서 기마와 활쏘기에 능했던 만주족의 풍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木蘭秋獮과 함께 팔기군의 무예 증진과 尙武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國俗으로 간주되었다.<sup>35</sup> 건륭제는 매년 동지를 즈음하여 태액지 빙상에서 외국사절단과 친왕 및 백관을 대동하고 선형 빙상 위에 앉아 이를 관전하였다. 빙희는 旂門을 설치하고 그 정중앙에 彩毬를 걸어 八旗將兵과 내무부 三旗 官兵에게 활을 쏘아 우열을 가리게 하였다.<sup>36</sup> 북경고궁박물관 소장 《氷嬉圖卷》은 건륭 연간 궁중화원 金昆 程志道 福隆安(1746-1784)의 공동작으로,<sup>37</sup> 그림에는 황제가 탄 빙상과 旂門에 달린 채구를 시위하는 팔기군의 모습이 매우 실감나게 묘사되어 참조가 된다(도20).

강세황 일행은 12월 29일 보화전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除夕宴에 참여하였고,<sup>38</sup> 1785년 정월 초하루에는 太和殿 朝參禮, 1월 2일에는 紫光閣에서 열리는 歲初宴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785년 1월 6일에 乾清宮에서 베푼 千叟宴에 참가하였다.

청조에서 千叟宴은 궁정 내 대규모 연회 중 하나로 노인을 공경하도록 교화하는 목적과

33 조선사절의 정원 중에 정사·부사·首譯만 입장하여 영대 가에 준비된 幕次에 앉아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內宴에만 쓰는 三清茶를 대접받았는데, 이는 잣·梅花·佛手を 雪水에 달인 것으로 특별히 외국의 사신들에게만 하사하였다. 『정조실록』 권19, 9년 2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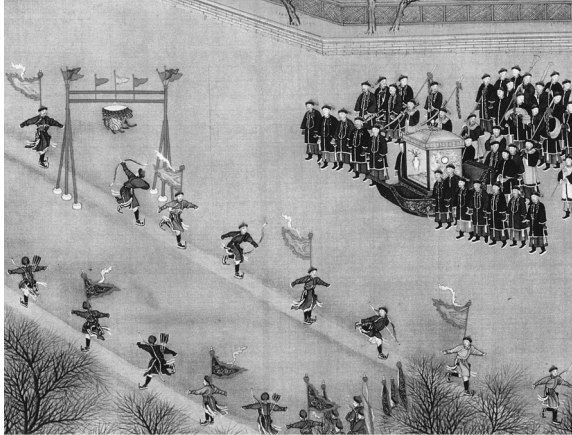
34 청대 태액지 일대 구조에 대해서는 金景善, 「留館錄」中, 『燕轅直指』卷4 참조.

35 『皇朝通典』卷58, 禮; 『皇朝通典』卷64, 戲; 『國朝官史』卷14, 宮殿4, 西苑上, 御製氷嬉賦.

36 袁杰, 「一幅冰上体育的画卷 - 《氷嬉圖》」, 『紫禁城』, 2007年 第2期.

37 북경고궁박물관 소장 《氷嬉圖卷》은 공동 작가 중 한명인 福隆安(1746-1784)의 물년을 고려할 때, 적어도 1784년 이전에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福隆安은 富察氏, 字는 珊林이며, 대학사 傅恒의 이들로 그림을 잘 그렸다. 1760년 3월 乾隆帝의 第4女 和碩和嘉公主(1745-1767)의 부마가 되었고, 동년 7월 부친의 작위를 계승하여 一等 忠勇公에 봉해졌다. 관직은 兵部尙書兼 軍機大臣에 이르렀고, 1773년 太子 太保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勤恪이다. 胡敬, 『福隆安』, 『國朝院書錄』卷1.

38 《수역은과첩》제17면부터 제21면까지는 北京에서 歲守 風景을 담은 삼사의 시로 노쇠한 몸을 이끌고 수천리 밖 이국에 와서 설날 그믐밤을 보내는 착잡한 심경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당시인 高適(常侍, 702-765)의 「除夜作」에 차운하였다.



도20 金昆, 程志道, 福隆安, 《冰嬉圖卷》부분,  
1784년 이전, 건본채색,  
35.0×578.8cm, 北京故宮博物院 소장

함께 안정된 성세를 널리 보여주기 위해 총 네 차례 거행되었다. 1713년(康熙 52년)에는 강희제의 六旬을 맞아 暢春園에서, 그 후 1722년(康熙 61년) 정월에는 강희제 60년 治世의 공적을 기념하여 乾清宮에서 거행되었다. 한편 건륭제 때 천수연은 1785년(乾隆 50년) 건청궁에서, 1796년(嘉慶 元年)에는 皇極殿에서 거행되었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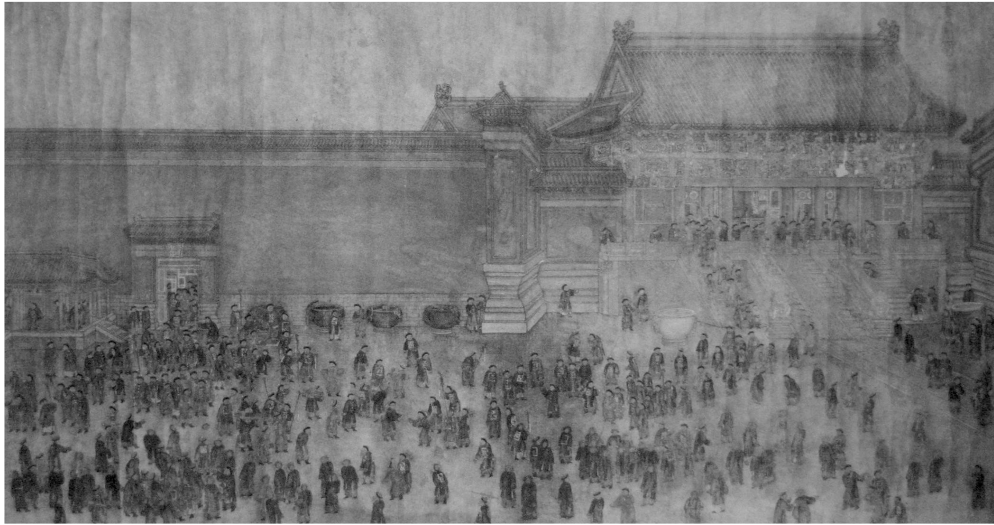
中國國家博物館 소장 <千叟宴圖>는 화폭의 우측 상단에 “乾清宮千叟宴圖”라는 화제와 우측 하단 “臣汪承霈恭書”라는 관지를 통해 1785년 건청궁에서 개최된 천수연 장면을 汪承霈(1747이전-1805)가 횡폭으로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다(도21).<sup>40</sup> 화면에는 건청문 앞 금동사자 한 쌍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었고, 그 앞으로 공복을 갖춘 노인들이 천수연을 마치고 황제가 하사한 쾌장, 비단 등을 들고 분주한 정황을 묘사하여 건륭제가 노인들에게 베푼 恩典의 성대함을 보여준다.

1785년 건륭제(1711-1799, r. 1735-1795)는 皇祖 강희제(1654-1722, r. 1662-1722)의 전례에 따라 천수연을 거행하였는데, 청나라 전역에 詔書를 반포하여, 65세 이상의 관원, 70세 이상의 평민을 초대하였다.<sup>41</sup> 이어 건륭제는 천수연에 참여할 조선국 사신은 나이 60세 이상으로 뽑아 耆年 사람들을 예우하는 뜻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시 조선에서 진하사은겸동지사로 파견한 정사 李徽之는 70세였고, 부사 강세황은 72세 노구를 이끌고 사행

<sup>39</sup> 楊莉, 「康乾盛世的尊老之宴 - 從《千叟宴圖》說起」, 『北京文博』(北京市文物局, 2006).

<sup>40</sup> 汪承霈은 汪由敦의 아들로 자는 受時, 春農, 호는 時齋, 蕉雪이며, 1747년(건륭 12년) 舉人이 되어 관직은 병부 상서에 이르렀고, 산수, 인물, 화훼, 지도화에 모두 능하였다. 俞劍華 『中國美術家人名辭典』(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6), p. 451.

<sup>41</sup> 『정조실록』 권19, 9년 3월 22일(신미) 조



도21 汪承霽, 〈千叟宴圖〉, 1785, 지본채색, 91.2×151cm, 中國國家博物館 소장

하였다.<sup>42</sup> 서장관 이태영은 정사, 부사와 달리 50세를 갓 넘은 나이였다.

강세황의 유물 중 千叟宴賜物 綠頭牌는 강세황이 조선국 副使 자격으로 천수연에서 황제의 賜物을 받을 때 지참했던 신분과 성명을 적은 대나무패이고, 당시 〈御製千叟宴詩〉 手筆印本은 건륭제의 사물 중 하나였다.<sup>43</sup> 〈御製千叟宴詩〉 手筆印本의 내용은 《수역은과첩》 제3면부터 제5면에 걸친 건륭 어제시 「千叟宴恭依皇祖原韻」과 일치한다.<sup>44</sup>

1785년 1월 15일 정월 대보름에는 圓明園 正大光明殿에서 행해지는 元宵宴과 1월 18일과 19일에는 圓明園 山高水長閣에서 열리는 燃燈宴에 참여하였다. 〈御製千叟宴詩〉 手筆印本 우측에 적은 강세황의 제발에서 당시 정황을 자세히 적었다.

나는 을사[1785]년 정월에 천수연에 참여하였고, 그 후 보름에는 皇駕를 따라 원명원에 가서 여러 날 등회를 관람하고 파하였다. 命에 의해 산고수장각에 입시하였는데, 황제는 처마

<sup>42</sup> 『通文館志』 卷10, 정조8년(1784) 기사; 『정조실록』 권8, 8년 10월9일(신묘)조.

<sup>43</sup> 『정조실록』 권9, 9년 2월 14일(갑오)조; 〈御製千叟宴詩〉 手筆印本은 『정조실록』에 의하면 정사 이휘자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藤塚鄰은위 유물을 근거로 당시 부사 강세황에게 내린 하사품에도 〈御製千叟宴詩〉 手筆印本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藤塚鄰 著, 藤塚明直 編, 『清朝文化東傳の研究』(國書刊行會, 1975), pp. 51-52.

<sup>44</sup> 甲辰燕行詩畫帖 이휘지家藏 시화첩 내 모든 제시에 대한 원문 및 해석은 鄭恩主, 앞의 논문(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 151-191 참조.

아래 놓인 작은 의자에 걸터앉았다. 층계가 매우 낮아 나는 지척 앞에 앉았는데, 풍속에 구부러 엎드리는 예는 없고, 단지 머리를 들고 꿇어앉는다. 얼핏 보니 안색은 정황색이며 늙지는 않았으나 점과 사마귀가 섞여 있다. 귀밑머리는 많고 검으며, 턱수염은 짧고 적으면서 흰 수염이 과반으로 불과 50-60세 정도일 것 같다. 항상 미소를 띠고 좁은 소매의 담비가죽옷을 입었는데, 털이 겉면에 드러나 있고, 머리에는 담비가죽의 滿帽을 썼다. 기침을 자주하여 시신들은 唾壺를 들고 좌우에 서서 침을 받았다. 몇 마디 말을 한 후 또 시신을 따르도록 하여 慶豐圖에 가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sup>45</sup>

1785년 정월 18일 부사 강세황이 山高水長閣에서 황제 御床 아래 叩頭禮를 행하면서 가까이 친견할 수 있었던 건릉제의 안색과 용모·복식 등을 마치 초상을 그리듯 상세하게 기술한 점이 흥미롭다. 건릉제는 당시 이미 70대 중반에 접어든 노인이었지만, 강세황은 황제의 나이를 50-6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건릉제의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했던 것 같다.

그밖에 연경에서 청인들과 교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전한다. 일본 학자 후지츠카 지카시(藤塚鄰)가 자신의 挀莫齋에 舊藏했던 시첩 『有能爲也帖』은 이회지와 강세황 일행이 博明을 비롯하여 淸禮部尙書 德保와 吏部尙書 金簡, 그리고 顏應輝, 劉人直, 陳杰 등 학자들과 주고받은 詩札을 書箋型 2첩으로 장황한 것이다.<sup>46</sup> 또한 『포암유고』에는 강세황이 연경에 들어가 博明, 예부상서 德保(?-1789), 공부상서 金簡, 낭중 琳 등과 차운한 시가 여러 수 전한다.<sup>47</sup> 이를 통해 강세황과 이회지가 조선사신의 신분으로 주로 외국사신과 접촉의 기회가 많았던 청 관리들과 함께 시와 필담을 주고받았던 정황을 알 수 있다.

## V. 연경 天主堂 방문과 西學 인식

조선사절단은 연경에서 사행 관련 공적인 활동 외에 개별적으로 연경 일대 사적이나 천

<sup>45</sup> 《御製千叟宴詩》手筆印本. 우측에 적은 강세황 제발 원문은 정은주, 앞의 논문(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 154-155, 주 271 참조.

<sup>46</sup> 藤塚鄰著, 藤塚明直編, 앞의 책(國書刊行會, 1975), pp. 49-69.

<sup>47</sup> 「甲辰拜副使入燕京和禮部尙書德保三首」, 「次正使韻呈金尙書簡」, 「和進千叟宴詩」, 「次博西齋明見贈韻」, 「次上使韻贈博西齋」, 「贈和郎中琳」, 「次德保次上使千叟宴詩韻」, 「次德保次千叟宴詩韻」, 『鵝庵遺稿』 권2 참조(西齋 博明을 '博明'이라 誤記).

주당을 찾기도 하였다. 徐慶享의 『夢經堂日史』에 의하면, 강세황이 연경에서 견문을 바탕으로 『北燕人物圖』를 그려왔는데, 낙타 등 중국의 이색 풍속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sup>48</sup>

또한 강세황이 천주교 南堂을 두 차례나 방문한 기록이 있어 흥미롭다. 조선 후기 연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것 중 하나는 멀리서 바라보면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천주당의 벽화였다.<sup>49</sup> 그만큼 연경 천주교당 내의 서양화는 이 시기 조선사절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奇觀이었다. 西學에 대한 서적이 조선에 유입된 것은 이미 宣祖(1568-1607) 말년부터였으나,<sup>50</sup> 조선사절이 연경에 가서 천주당을 구경한 것은 강희 연간(1662-1722) 이후이다.<sup>51</sup> 18세기 조선사신 대부분은 천주당을 방문하였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천주당에 그려진 신상 및 기이한 기구를 보여주었고 서양 물품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다.<sup>52</sup> 따라서 조선사절단이 왕래했던 연경 천주당과 서양 선교사와의 접촉을 통한 서양화와 서양의기의 유입은 조선화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강세황 일행의 천주당 방문과 관련하여 《수역은파첩》제22면부터 제23면까지는 강세황을 비롯한 삼사가 1784년 12월 25일 宣武門 내에 있는 연경의 천주교 남당에 방문한 내용으로 주목된다(도 22).

천주당은 연경의 서쪽 선무문 안에 있는데, 우리들은 갑진년(1784) 12월 25일에 가서 구경했다. 아로새긴 용마루와 단청한 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 있어 사람의 눈을 놀라게 했다. 마침내 누각 뒤에서 돌계단 20여 개를 밟고 그 위층으로 올라가 온성의 누대와 煙樹를 내려다보니, 황홀하여 선계인 廣寒宮에 들어온 듯하였다.<sup>53</sup>

『표암유고』 권2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었는데, 도입부에서 “天主堂” 대신 “西洋人所居”라고 하였다. 여기서 강세황은 천주당과 서양인들이 사는 곳을 동일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당 서편에 흠천감 소속 서양선교사들이 거주하는 전통가옥이 붙어 있었기 때문

<sup>48</sup> “余曾借豹庵所畫北燕人物圖，嘗見素駝於圖中，以今所見，一毫不爽，真異獸也。” 徐慶享，「五花沿革」，《夢經堂日史》2編 1855년 11월 25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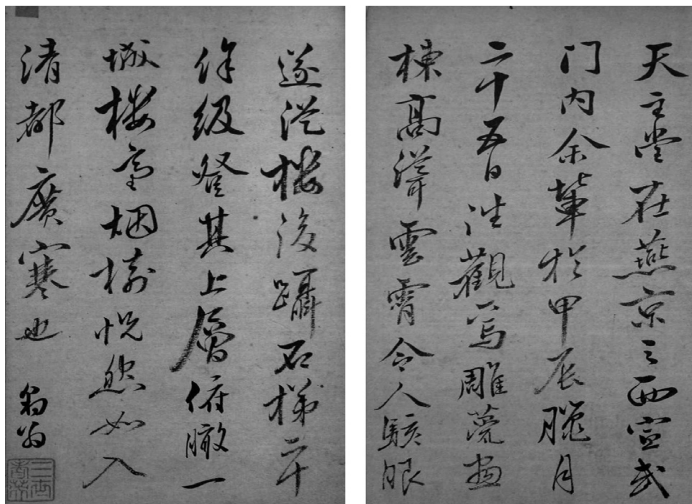
<sup>49</sup> 朴趾源，「駙馬隨筆」，《熱河日記》，7월 15일；李德懋，「天涯知己書」，《靑莊館全書》卷63，筆談.

<sup>50</sup> 安鼎福，「雜著」，《順庵集》 권17，天學考.

<sup>51</sup> 金昌業，「燕行日記」 권1，1712년 11월 4일조； 권6，1713년 2월 9일조.

<sup>52</sup> 洪大容，「外集」卷7，《滄軒書」，燕記，劉範問答.

<sup>53</sup> “天主堂(西洋人所居)在燕京之西宣武門內，余輩於甲辰臘月二十五日，往觀焉，雕甍畫棟，高聳雲霄，令人駭眼，遂從樓後，躡石梯二十餘級，登其上層，俯瞰一城樓臺煙樹，恍然如入清都廣寒也。” 豹翁，《壽域恩波帖》제22-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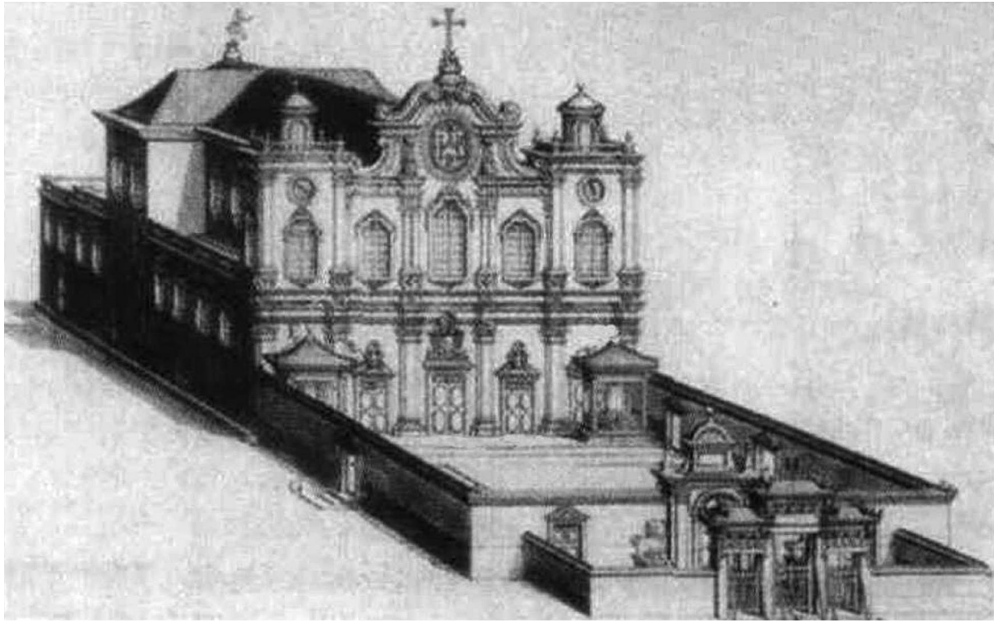
도 22 《壽域恩波帖》 제22 면과 제23 면, 절두산순교박물관 소장

이다.

《수역은파첩》 제24면부터 제27면까지는 강세황을 비롯한 삼사가 천주당 누대에 올라 내려다본 연경 성내의 정경을 각각 시로 읊어 이곳을 방문한 삼사는 천주당 누각에 올라 천주당의 지붕은 물론 연경 시내를 조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84년 강세황이 남당을 방문했을 당시 건물 구조는 1775년(건륭 40년) 제5차 중수 후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吳長元(1770년 전후 활동)의 『宸垣識略』에 의하면, 중건 이후 남당의 堂制는 좁고 깊은 형태로 정면은 바깥을 향하여 완연히 측면과 같았고, 그 꼭대기는 捲棚式으로 기와를 덮었다. 정면 끝에 문을 하나 만들어 두었고, 창은 동서 양벽 꼭대기에 만들었다. 남당의 높이는 高樓를 포함하여 3층이었고, 상감하여 꾸민 明瓦로 된 窓이 있었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覆舟와 같은 형태로 서구의 바로크 양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의 북쪽 벽에는 예수상을 모셨고, 교당의 좌우에는 두 軒樓가 있었는데, 좌측에는 天琴을 놓아두었다. 그리고 우측 聖母堂에는 예수를 안은 성모상을 모셨는데, 이곳에는 簡平儀, 龍尾車, 沙漏, 遠鏡, 候鐘 등 서양에서 만든 기구를 두었다.<sup>54</sup> 1775년 중수 후 남당의 구조를 그린 조감도에서는 남당 서편에 접해 있던 서양인 거주지는 생략되었으나, 위의 정황을 대략적으로 살필 수 있다(도 23).

<sup>54</sup> (清)吳長元 著, 「天主堂堂制」, 『宸垣識略』(北京古籍出版社, 1983); 李曉丹, 張威, 「16-18世紀中國基督教教堂建築」, 『建築師』(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3), pp. 54-63; 趙曉陽, 「南堂風雨100年」, 『中國民族報』(2007. 3. 20).



도 23 1775년 중수 후 南堂 조감도

1766년 여행하였던 홍대용이 남당을 구경하면서 기술한 내용에 따르면, 누대에 오르기 위한 과정은 남당 옆 흠천감 소속 선교사들의 거주지 정문을 통과하여 客堂에서 서양 선교사 劉松齡(Augustin de Hallerstein, 1703-1774)과 鮑友管(Antoine Gogeisl, 1701-1771)을 만나 그들의 안내로 서양인 거주지의 뜰을 지나 계단을 따라 다시 문을 통과하여 동쪽에 위치한 천주당 내에 들어가 천주의 유적, 고사를 그린 벽화와 건물 2층에서 서양국 국왕 및 선교사들의 초상화를 접하였고, 마침내 그 위로 연결된 천주당의 高樓에 오를 수 있었다.<sup>55</sup> 1780년 사행하였던 박지원은 천주당 내 천정화에 대한 매우 사실적 감상을 적어 1775년 교당 내부 중수 이후에도 천정벽화가 복원된 것을 알 수 있다.<sup>56</sup>

따라서 당시 남당 구조를 고려해볼 때, 강세황이 올라 연경시를 조망했던 누각은 화면에 있는 2개 高樓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흠천감 소속 선교사들의 거주지를 먼저 방문

<sup>55</sup> 조선사절은 흠천감 소속 서양인 선교사와 면담한 후 그들의 안내로 천주당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천주당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양인 거주지와 연결된 입구를 통과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략) 遼請局觀堂中, 劉即起揖與偕行, 由北門入, 又有庭花樹蔚然, 循階而東, 再入門, 東有高屋, 竊然結構, 皆用甄鑿, 卽路上所瞻也, 廣爲數十間, 高可五六丈(후략).” 洪大容, 「外集」卷7, 『湛軒書』, 燕記, 劉鮑問答.

<sup>56</sup> 朴趾源, 「黃圖紀略」, 『熱河日記』, 洋書.

한 후, 그 뒤뜰을 지나 천주당에 이르러 교당 내부에서 계단을 통해 교당 위의 高樓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강세황 일행은 서양인 거주지의 서양화와 의기는 물론 고루에 오르면서 천주당 내에 있던 서양화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수역은과첩》 제28면에서 1785년 정월 南堂을 다시 찾은 강세황이 천주당에 기궤한 볼거리가 무한하여 李公麟(1049-1106)이나 文徵明(1470-1559)의 정묘한 필력이라도 다 읊길 수 없을 것이라 하였던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천주당은 인간의 奇詭한 볼거리가 무한하여 伯時(李公麟)나 徵仲(文徵明)의 정묘한 필력이야 그 만에 하나를 빼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 흑 그림을 잘 그리는 이가 있어 천주당에 이르면 그 건물의 광대함을 그려, 마침내 모자라거나 빠뜨린 것을 보충해주는 것이 바로 내 깊은 바람이다.

1785년 정월 표용<sup>57</sup>

강세황이 천주당을 두 차례 방문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천주당 건축 양식은 물론 그곳에서 접한 이국적 繪畫과 神像, 그리고 서양 奇器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후에 선화자가 이르렀을 때 자신이 미처 그리지 못한 것을 보충해 줄 것을 당부한 점에서 강세황의 西學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글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강세황의 연경 천주당 방문과 그곳에서 접한 서학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강세황의 西學에 대한 관심은 독일 선교사 쇠글러의 <天象圖>에 나타난 月影圖를 자신의 서자 姜喆에게 읊겨 그리도록 하고 적은 발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sup>58</sup>

서양인이 만든 千里鏡은 일명 視遠鏡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天象을 보면 해와 달, 별의 형상을 뚜렷이 분별할 수 있다. 五星(수·화·목·금·토성) 모양 또한 각각 같지 않다. 이 그림에 그려진 달 속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예부터 중국인들이 그 형상이 이러한 것이라 아직 상세히 관찰한 바가 없었다. 廣寒宮의 버드나무 그림자 說이나 토끼와 두꺼비가 약을 찢는다는 說은 애초에 이것저것 따질 것이 못되어 오직 大地山河의 그림자라는 설을 지금까지 믿었

<sup>57</sup> “天主堂極人間奇詭之觀艱無，伯時徵仲之精妙筆力，摸寫其萬一也，此後或有善畫者，到天主堂，寫其室廡之宏，遂以補缺陷，是我深望。乙巳正月 豹翁。《壽域恩波帖》제28면

<sup>58</sup> 남당 내에 있던 戴進賢의 <天象圖>에 대한 언급은 이미 1760년 동지사로 연행하였던 홍계희 일행으로 연경에 갔던 李商鳳의 연행기록인 『北轅錄』에도 있다. 李商鳳, 『北轅錄』 권5, 辛巳年 1월 23일, 2월 6일조.

는데, 이 또한 탄망하여 說이 있더라도 논할 수 없었다. 서양인 戴進賢(Ignatius Kögler, 1680-1746)이 그린 <天象圖>에 그려진 月影이 이와 같으니, 庶子 信이 옮겨 그렸다.<sup>59</sup>

여기서 강세황이 달 속에 있는 형상을 토끼나 두꺼비에 비유한 동양의 신화적 해석에서 벗어나 관측의 결과로 그려진 <천상도> 속 달그림자를 통해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강세황의 서학에 대한 적극적 수용 태도는 이후 강세황 만년 작품과 그와 관계한 회원화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실적 화풍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1784년 진하사은검동지사행을 배경으로 제작된 5첩의 시화첩을 중심으로 강세황의 연행활동과 관련 회화를 검토하였다. 이들 시화첩은 서로 다른 소장처에 산재해 있어 지금까지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일부 작품에 한해 中國紀行帖이라 명명되어 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784년 진하사은검동지사행과 관련한 시화첩을 ‘甲辰燕行詩畫帖’이라 새롭게 명명하여 공적인 성격의 연행이라는 범주에서 고찰함으로써 작품별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각 작품에 나타나는 기록적 가치와 회화사적 의의를 모색하려 하였다.

甲辰燕行詩畫帖 중 《櫟路三奇帖》에 그려진 사행로의 실경과 사적에 대한 정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답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관련 제시 등을 비교하여 개별 작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화제를 각각 부여하였다. 그 결과 연경 청의, 즉 이회원의 모습을 조망한 西山 외에도 지금까지 ‘山水圖’로 명명했던 작품을 許孟姜의 사당을 그린 ‘姜女廟圖’로 지칭하였다. 또한 이들 작품과 동일한 사적을 그린 강세황의 분철화첩의 화풍과 비교한 결과 《櫟路三奇帖》의 실경도 역시 강세황의 작품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瀛臺奇觀帖》에서는 청에서 國俗으로 간주하여 매년 동지를 즈음하여 국가 전례로 행했던 연대빙희 장면과 《壽域恩波帖》에 나타난 건청궁의 천수연과 원명원에서 건륭제를 친견한 정황을 사행에서 공적활동의 연장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수역은파첩》에는 강세황의 두

<sup>59</sup> 姜世晃, 「書西洋人所畫月影圖摸本後」, 『鵞庵遺稿』卷5; 변영섭, 앞의 책, pp. 209-210 참조

차례 천주당 방문 내용이 있어 그곳의 서학 문물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밖에 《燕臺弄毫帖》에는 1785년 기년이 확실한 강세황의 사군자도 네 폭이 포함되어 《영대기관첩》의 〈석국도〉 등과 함께 그의 만년 사군자도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金臺弄翰帖》은 강세황과 역관가문 출신 金漢泰와의 관계는 물론 이들이 연경에서 만난 博明과의 교유관계를 살필 수 있는 사료로 주목하였다.

甲辰燕行詩書帖은 해당 그림에 대한 삼사의 수창시와 제발 등을 기록하여 그림 위주의 연행도 제작관행을 벗어나 詩書畫에서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형식면에서 독창성을 보인다. 또한 화원에 의해 그려진 다른 연행도가 채색과 묘사에서 기록화 형식의 섬세한 공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시화첩 내에 포함된 실경도는 강세황 특유의 남종문인회풍이 농후하며, 그의 만년까지 지속된 실경산수화에 대한 관심과 사생태도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작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_\_ 강세황(Gang Se-hwang), 갑진연행 시화첩(Gapjin Yeonhaeng Sihwa-cheop), 중국기행첩(Jungguk Gihaeng-cheop), 사로삼기첩(Saro Samgi-cheop), 영대기관첩(Yeongdae Gigwan-cheop), 수역은파첩(Suyeok Eunpa-cheop), 연대농호첩(Yeongdae Nongho-cheop), 금대농한첩(Geumdae Nonghan-cheop), 천주당(Catholic church)

## 참고문헌

### 1. 한국문헌 및 논저

- 『正祖實錄』 권18.  
「事大」上; 卷10, 『通文館志』 卷3, 정조 8년(1784).  
姜世晃, 『豹菴遺稿』 권2; 권5.  
金景善, 「出師錄」; 권4, 「留館錄」中; 권5, 「留館錄」下, 『燕轅直指』 권2.  
金昌業, 『燕行日記』 권1; 권6.  
朴趾源, 「銅戴步筆」; 「關內程史」, 『熱河日記』.  
徐慶享, 「五花沿筆」, 『夢經堂日史』 2編.  
安鼎福, 「雜著」, 『順菴集』 권17, 天學考.  
李商鳳, 『北嶽錄』 권5.  
李裕元, 「華東玉糝編」, 『林下筆記』 권34.  
李臨淮, 『燕京八景辨析』, 「太液秋風」.  
洪大容, 「外集」 권7, 『湛軒書』, 燕記; 劉龜問答.

- 김건리, 「豹菴 姜世晃의 《松都紀行帖》 연구」, 『美術史學研究』 237・238, 2003.  
박은순, 「朝鮮後期 『瀟陽館圖』 畫帖과 西洋畫法」, 『미술자료』 58, 1997.  
邊英燮, 「豹菴 姜世晃 繪畫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_\_\_\_\_, 『豹菴姜世晃繪畫研究』, 一志社, 1988.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편, 『豹菴 姜世晃』, 우일출판사, 2004.  
이원복, 「豹菴 姜世晃의 중국기행첩(1)」, 『韓國古美術』 10, 한국고미술협회, 1998. 1・2.  
\_\_\_\_\_, 「豹菴 姜世晃의 중국기행첩(2)」, 『韓國古美術』 11, 한국고미술협회, 1998. 3・4.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0.  
정은주, 「庚辰冬至燕行과 《瀟陽館圖帖》」, 『明清史研究』 25, 명청사학회, 2006.  
\_\_\_\_\_, 「明清交替期對明 海路使行記錄書 研究」, 『明清史研究』 27, 명청사학회, 2007.  
\_\_\_\_\_, 「朝鮮時代 明清使行 關聯 繪畫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2. 동양문헌 및 논저

- 『畿輔通志』 卷49, 祠祀  
『皇朝通典』 卷58, 禮; 卷64, 戲.  
『國朝宮史』 卷14, 宮殿 4, 西苑上, 御製冰嬉圖式.  
吳長元(1770년 전후 활동) 著, 「天主堂堂制」, 『宸垣識略』, 北京古籍出版社, 1983.

- 藤塚鄰著, 藤塚明直編, 『清朝文化東傳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 傅廷仲, 「昆明湖畔銅牛」, 『紫禁城』, 1999年2期.
- 楊莉, 「康乾盛世的尊老之宴 - 從《千叟宴圖》說起」, 『北京文博』, 北京市文物局, 2006.
- 王錦光・李勝蘭, 「博明和他的光學知識」, 『自然科學史研究』, 1987年 第4期
- 袁杰, 「一幅冰上體育畫的卷-《冰嬉圖》」, 紫禁城, 2007年2期.
- 俞劍華, 『中國美術家人名辭典』,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6.
- 李曉丹, 張威, 「16-18世紀中國基督教教堂建築」, 『建築師』,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3.
- 趙曉陽, 「南堂風雨400年」, 『中國民族報』, 2007.3.20.

甲辰燕行詩書帖은 1784년 10월부터 1785년 2월까지 進賀謝恩兼冬至使로 연행한 정사 李徽之(1715-1785), 부사 姜世晃(1713-1791), 서장관 李泰永(1744-1803)이 함께 사행에서 수창한 시와 그림을 엮은 詩書帖이다. 당시 사행의 목적은 청나라 건륭제가 50년 동안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린 것을 하례하고 칙령으로 조선사신을 千叟宴에 참석시킨 것과 중국에 표류한 조선인을 돌려보낸 것에 대한 사례, 그리고 年貢을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강세황의 일부 작품으로만 간주되던 中國紀行帖을 1784년 등지사행을 배경으로 제작된 5점 이상의 시화첩으로 확대하여 甲辰燕行詩書帖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시화첩이 강세황 개인의 기행이라기보다 燕行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배경으로 제작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행노정 및 특정 사안과 각 작품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기록적 가치와 회화사적 의의를 모색하려 하였다.

甲辰燕行詩書帖 중 《樵路三奇帖》에서 부사 강세황이 그린 사행노정의 실경과 사적에 대한 정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중국 현지답사를 통한 사진을 비교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북경 청의원, 즉 이화원의 모습을 조망한 西山 외에도 지금까지 임의로 『山水圖』라 명명했던 작품을 허맹강의 사당을 그린 ‘姜女廟’로 지칭할 수 있었다. 한편 북경에서 이루어진 사행의 공적활동으로 《瀛臺奇觀帖》중 청에서 國俗으로 간주하여 매년 등지를 즈음하여 공식적 국가 전례로 행했던 빙회 장면과 《壽域恩波帖》에서 건청궁의 천수연, 원명원에서 건륭제를 친견한 정황을 기록과 중국 기록화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특히 《수역은파첩》중 두 차례 천주당 방문 기록은 강세황의 천주당 신문물에 대한 관심과 예리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 조선 후기 화단에서 그의 위치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밖에 《金臺弄翰帖》은 강세황과 역관가문 출신 金漢泰와의 관계는 물론 이들이 북경에서 만난 博明과의 교유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주목하였다. 《燕臺弄毫帖》에는 1785년 기년이 확실한 강세황의 사군자도 네 폭이 포함되어 《瀛臺奇觀帖》의 〈석극도〉와 함께 그의 사군자도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甲辰燕行詩書帖은 해당 그림에 대한 삼사의 수창시와 제발 등을 기록하여 그림 위주의 연행도 제작관행을 벗어나 詩書畫에서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또한 시화첩 내에 포함된 실경도는 전문화원에 의해 그려진 다른 연행도가 채색과 묘사에서 비교적 섬세한 공필을 사용한 것과 달리 강세황 특유의 남중문인화풍이 농후하여 그의 만년까지 지속된 실경 산수화에 대한 관심과

사생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작으로 의의가 있다.

*Gapjin Yeonbaeng Sibwacheop*:  
Gang Se-hwang's Beijing Travel and Journey Paintings

**Jeong Eunjo\***

*Gapjin Yeonbaeng Sibwacheop* is a collection of poems and paintings produced by a Joseon diplomatic mission to Beijing in China. The mission, which lasted between the tenth month of 1784 and the second month of 1785 was led by chief envoy Yi Hwi-ji (1715-1785), Gang Se-hwang (1713-1791) as its vice-envoy and Yi Tae-yeong (1744-1803) as a document officer. Joseon envoys' visit to Beijing had three goals: congratulating Emperor Qianlong for his fifty years' peaceful reign, thanking him for the recent decree inviting Joseon officials to Cheonsuyeon (Ch. *Qiansouyan*: 'Banquet of a Thousand Elders') and the repatriation of Joseon castaways, and paying the annual tribute to the imperial court.

This collection of poems and paintings created during the 1784 trip to China is known in Korea as *Jungguk Gibaengcheop* (Travel Sketches from China). In this paper, I have added to this collection other works by Gang Se-hwang, also produced in connection with this trip, and designate them together as *Gapjin Yeonbaeng Sibwacheop* (Poems and Paintings from Travel to China in the Year of Gapjin). The study is an exploration of how these works to be depicted by Gang Se-hwang, resulting from an official visit to a foreign country in the context of a diplomatic mission, rather than a personal trip by the artist, because most of works were influenced by the

---

\* Researcher of Korean Studies Information Cent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oals of the mission and its itiner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ocumentary dimension and value of works contained within *Gapjin Yeonbaeng Sibwacheop* and their significance for the history of Joseon-period painting.

To cast light on the landscapes and historic spots depicted in ‘Saro Samgicheop’ of *Gapjin Yeonbaeng Sibwacheop*, whose real models have never been established, I traveled to China and took photographs of corresponding sites. By comparing these paintings with the photographs of the sites where they are said to have been made, I was not only able to confirm that ‘Seosan’ was a view of the Summer Palace (*Yibeyuan*) in Beijing, but also, and more importantly, determine that the actual model of a painting referred to simply as “Landscape” was the Shrine of Mengjiangnu. Some of the paintings in *Gapjin Yeonbaeng Sibwacheop* were checked for accuracy of representation by comparing them with Chinese documentary paintings on the same subjects.

A painting within *Yeongdae Giwancheop* (the volume documenting places visited during official duties), depicted “game on ice (*bingxi*)”, a national rite observed in the Qing Dynasty every year around the time of the Winter Solstice. Two leaves in *Suyeok Eunpacheop* described Cheonsuyeon, held in the Palace of Heavenly Purity (*Qianqinggong*), and the scene of a meeting with Emperor Qianlong in the Garden of Perfection and Light (*Yuanmingyuan*). The two successive visits made by Gang Se-hwang to the Catholic Church in Beijing, related in verses contained in *Suyeok Eunpacheop*. These writings, demonstrating Gang Se-hwang’s keen interest in Western civilization and presenting his sharp observations, retain a high historical significance, given especially the large-than-life status he enjoyed in the painting and artistic circles of late Joseon. This study also pays close attention to *Geumdae Nonghanchepop*, which provides an account of Gang Se-hwang’s relationship with Kim Han-tae, a multi-generation interpreter, and exchange they had in Beijing with Bo Ming (博明). As for *Yeondae Nonghocheop*, the volume contains four paintings on the theme of Four Gentlemen, which are of particular interest due to their confirmed year of creation (1785). These four paintings, along with *Seokguk-do* in *Yeongdae Giwancheop*, promise to offer important insight into Gang Se-hwang’s Four Gentlemen.

*Gapjin Yeonghaeng Sibwacheop* stands out from other travel sketches, often consisting mostly of paintings, in that it contains poetic improvisations by the three envoys, and postscripts

contributed by them, striking a fine balance between poetry and painting. Also noteworthy is the fact that Gang Se-hwang's true-view landscapes in this collection, executed in the style of the Chinese Southern School of painting (*nanzonghua*), set themselves apart from other landscapes by professional painters of his time, characterized by meticulous depiction of details. These works testify to Gang Se-hwang's interest in true-view landscape painting until his late years, and offer an invaluable glimpse of his attitude and interaction with the painting subjects.